

술 권하지 않는 사회, 싱가포르

무·저알코올 맥주의 종류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맥주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더 낮은 칼로리와 나은 맛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 포착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무알코올 맥주인 하이네켄0.0이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 런칭하였으며 하이네켄 운영사인 '싱가포르 아시아 퍼시픽 맥주사(Asia Pacific Beris Singapore)'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무·저알코올 맥주를 마시도록 권장하기 위해 마케팅 예산의 20%를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시아 퍼시픽 맥주사(Asia Pacific Beris Singapore)'의 대표 Andy Hewson은 싱가포르 알코올 시장을 하향 추세로 전망하진 않지만, 현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코올을 소비하지 않기에 하이네켄0.0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무·저알코올 시장은 궁극적으로 현지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사이드 제품 시장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무·저알코올 맥주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칸타르 세계 패널 보고서(Kantar World Panel)'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무·저알코올의 소비량이 2018년 8월에는 58%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무알코올 맥주는 현재 유럽 맥주 생산의 2%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2017년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 판매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무알코올 시장은 엄격해지는 음주법과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2024년까지 250억 달러(약 28조 4,5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코올이 함유된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맥주라고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싱가포르 법에 따라 0.5%미만의 알코올 함유 음료는 무알코올 제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알코올 맥주 하이네켄0.0도 무알코올 맥주 라벨이 표기되어 있긴 하나 0.3%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판매 또한 법적 적정 음주 나이의 소비자에게만 판매한다.

Healthhub 웹사이트에 따르면, 알코올 함유가 높을수록 칼로리가 높아 일반 맥주는 330mL 한 캔당 158칼로리인데 반해, 무알코올 맥주의 칼로리는 낮은 편으로 하이네켄0.0의 경우 69칼로리인 걸로 나타났다.



Key Point

- 싱가포르는 음주하는 사람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며 술을 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알코올 소비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에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무·저알코올 맥주가 없으므로 싱가포르로의 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 맥주 수출 |

